

윤상 “스토리 방해 않고 제 몫 했으면”

‘뒤틀린 집’ 영화 음악감독 데뷔
“공포라는 형식 빌린 잔혹극”

싱어송라이터 윤상이 영화음악 감독으로 데뷔했다. 1988년 김현식 4집 앨범 수록곡 ‘여름밤의 꿈’ 작곡으로 대중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지 34년 만이다.

첫 영화음악 작업은 강동헌 감독의 공포영화 ‘뒤틀린 집’이다. 윤상은 지난 5일 오후 시사회에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해 “강동헌 감독의 ‘기도하는 남자’를 우연히 봤다”며 “바로 크랭크인 하는 영화가 ‘뒤틀린 집’이라고 하더라. 감독님이 하는 작품이면 뭐든지 하지는 마음이였다”고 말했다.

‘뒤틀린 집’은 산기슭 외딴집으로 이사한 가족이 불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잇따라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풍수지리상 대문·거실·침실 등의 방위가 뒤틀려 온갖 귀신이 모여든다는 ‘오귀택’을 소재로 했다.

“음악적 평가보다는 스토리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했는지 고민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음악이 영화보다 기억에 남으면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영화 뒤에 숨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전건우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그러나 원작의 퇴마 에피소드를 줄이고, 한 가족에게 닥친 파국에 집중한다.



싱어송라이터 윤상이 지난 5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뒤틀린 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진이 참여한 영화음악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제공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명혜의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급하게 구한 집에서 외려 돌아갈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한다.

뒤틀린 것은 집인가, 가족의 마음인가. 영화는 말초적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입양과 육아우울증·아동학대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윤상은 “공포라는 형식을 빌린 잔혹극”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말쭉한 척 살고 있는 부모에게 혐미경을 들이대 내면을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 포인트”라며 “킬링타임용 영화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동헌 감독은 장르영화에 대한 갈증으로 하우스 호러를 만들었다고 했다.

강 감독은 “영화는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각적 측면을 늘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반에 물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면 후반부의 감정적 체험도 좀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말 못하는 척이 가장 어려웠죠”

영화 ‘마녀2’ 저스틴 하비
비밀요원 톰으로 연기 데뷔

“‘그냥 이거다!’ 싶었어요. 앞으로 이거(연기) 무조건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송인 저스틴 하비가 배우로 변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예능 ‘대한외국인’·‘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해 온 그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마녀 2’에서 비밀요원 톰 역을 맡았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빌딩에서 만난 저스틴 하비는 “상상을 통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녀 2’로 연기자로 데뷔한 그는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첫 작품이고 비중이 커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저스틴 하비가 연기한 톰은 소녀(신시아 분)를 쫓는 조현(서은수)의 부하다.

“톰은 몸을 잘 쓰고, 주변 사람을 잘 보살피는 인물이에요. 충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점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톰의 매력은 코믹함과 진중함을 오가는 데 있다. 시종일관 날 선 태도로 육설을 내뱉는 조현에게 어리숙한 한국말로 ‘육쟁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



영화 ‘마녀2’에 출연한 배우 저스틴 하비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도 과자 먹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조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반전 매력’을 가졌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한국어를 못하는 척 연기하는 것”을 꼽았다.

“한번은 감독님께서 ‘너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한다’면서 ‘더 외국인처럼 해보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한국말을 못 하는 외국인이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려고 했죠. (웃음)”

“연기가 너무 좋다”는 저스틴하비는 로맨스 주인공부터 사이코패스까지 다채로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징어 게임’ 속 알리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 역할이든 아무거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좋아요.” /연합뉴스

블랙핑크가 돌아온다...내달 신곡 발표

1년 10개월만 완전체

결그룹 블랙핑크가 다음 달 신곡을 내놓고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는 현재 새 앨범 녹음 작업 막바지 단계”라며 “이달 중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는 것은 2020년 10월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블랙핑크는 당시 정규 1집으로 14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려 K팝 결그룹 최초 밀리언 셀러에 등극한 바 있다. 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픈셜 앨범 차트

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이들은 정규 1집 이후 멤버 별로 솔로곡을 발표해 내놓는 곡마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리사의 솔로곡 ‘머니’(Money)는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기록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블랙핑크다운 음악이 많이 준비됐다”며 “전 세계 팬과 교감하기 위해 컴백과 맞춰 연말까지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 위상에 걸맞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핑크는 음반·음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결그룹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서도 글로벌 정상급 위상을 지니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7,500만명 이상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다. 그룹과 멤버 개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억 1,800만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우주소녀 “퀸덤2 우승 후 부담...열심히 준비”

싱글 앨범 ‘시퀀스’ 발표

“‘퀸덤2’ 우승 후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부담감이 더 컸는데요. 그 부담감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했던 거 같습니다.”

그룹 우주소녀는 지난 5일 스페셜 싱글 앨범 ‘시퀀스’(Sequenc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년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퀀스’는 지난달 종영한 엠넷의 경연 프로그램 ‘퀸덤2’에서 우승한 이들의 새로운 행보와 관련한 메시지를 담았다.

리더 예시는 “시퀀스는 ‘퀸덤2’에서 보여준 우주소녀의 연장선”이라며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지금 우주소녀의 열정을 더 빛내겠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인 앨범”이라고 말했다.

멤버 은서는 “이번 앨범으로 ‘우주소녀 잘하는 팀이었지, 우승할만하다’라는 평가를 확고히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퀀스는 타이틀곡 ‘라스트 시퀀스’(Last Sequence)를 포함해 ‘퀸덤2’ 우승 경연곡이었던 ‘아우라’(AURA), 예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던’(Done), 다연과 연정의 듀엣곡 ‘스트롱거’(Stronger) 등 모두 4곡을 실었다. 이달 선공개된 ‘라스트 시퀀스’ 뮤직비디오에서는 인어공주로 분한 우주소녀 멤버들이 등장했다.

수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우주소녀에게 있어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라스트 시퀀스’라는 노래는 새로운 2막을 여는 순간이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순간일 거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망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가면 스페셜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교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두다다쿵 7:15 티시테시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왕사 아이야 9:05 박블루 9:20 멤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부모 클래스 1:50 명의 2:45 연미를 찾자마 3:35 안전채널e 4:05 영아스토리 타임 4:15 페파 피그 5:00 EBS 뉴스 5:45 그린조끼 구조대 6:00 생방송 워든지 해결단 6:4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맛터사이클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이것이 야생이다3 10: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2:00 통합뉴스룸 1:00 별별다방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세상을 걷다 스페셜 2:30 병과후 초능력 3:00 주디세이 3:15 뽀롱이의 그림일기 3:30 고등등심포니 3:45 다이노 파워즈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00 자본주의 학교 2:00 영상앨범 산 3:00 KBS 뉴스타임 3:10 갤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뽀롱이와 코코가족 5:15 티티채널 5: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50 통합뉴스룸ET	12:00 12MBC 뉴스 12:20 닥터로이어 1:40 출발! 비디오 여행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40 왜 오수재인가 2:00 뉴스브리핑 4:00 제10회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 폐막식 5:00 SBS 오뉴스 5:50 어머니 사투리2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한국인의 밥상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주문을 잊은 음식2 10:50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주점이 풍년 9:50 징크스의 연인 11:00 연중 라이브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금복권 7:10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실화탐사대 10:00 악파별라 11:20 심야간담회	6:2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뉴스 9:00 DNA싱어 11: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오늘의 운세		7월 7일 (음력 6월 9일)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子	48년생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60년생 부창부수하니 가정이 화목하다. 72년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84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辰	52년생 가능하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 64년생 절대 잘난 척 말라. 76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서러운 일을 당한다. 88년생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라.
 丑	49년생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61년생 행운이 함께 하는 멋진 날이다. 73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시비가 생긴다. 85년생 절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巳	41년생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다. 53년생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65년생 확신이 없다면 결정을 유보하라. 77년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寅	50년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62년생 다된 밥에 재 뿌린다. 74년생 운명은 가끔 노력으로 바뀌기도 한다. 86년생 친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午	4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 54년생 정정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하자. 66년생 중용을 따르면 허물이 없다. 78년생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다.
 卯	51년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63년생 최소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75년생 수고는 많지만 실속이 없다. 87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未	43년생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55년생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간다. 67년생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79년생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申	44년생 자칫하면 배신 당한다. 56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68년생 웬만하면 참는 것이 이롭다. 80년생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다.
		 酉	45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7년생 확장은 삼가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라. 69년생 안될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81년생 생 호박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다.
		 戌	46년생 현명한 처신은 평화를 보장한다. 58년생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심기일전하라. 70년생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82년생 동료의 배신을 조심하라.
		 亥	47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5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1년생 모두가 꺼리는 일은 하지 말라. 83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